

비료와 식량

2023년 12월호



- 1. 회원사 동정
- 2. 협회 주요 활동
-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 4. 농정 이슈
- 5. 무기질비료 주급 상황
- 6. 무기질비료 상식
- 7. 이달의 주요 인서
- 8. 회원사 제품 소개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2024년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구 사업계획 어떻게 짜여졌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가운데)과 우성태 농협경제지구 농업경제대표이사(왼쪽), 안병우 농협경제지구 축산경제대표이사(오른쪽)가 추석을 맞아 우리 농축산물 홍보에 나선 모습

한국형 농협체인본부를 중심으로 농협 경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농협경제지구 농업경제는 내년 경영목표를 '농협체인본부 도약으로 농업인 중심의 경제사업 100년 기반 마련'으로 정했다.

사업혁신

사업부문에서는 수급·영농·구매·판매·온라인 각각의 사업영역에서 농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변화를 꾀한다.

구매 사업은 구매경쟁력 강화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계통이용 증대에 중점을 둔다. 자체부문은 경쟁입찰 품목을 올해 84개 품목, 1600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100개 품목, 2000억 원 규모로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경쟁입찰과 예약구매 외에 매취(일반자재, 농기계부품), 연합구매(하우스 필름, 포장상자, 농약) 등 구매방식의 다각화를 추진하며 가격 인하 할인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유통사업은 구매체계를 개선하고 가격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고 계통사업 이용실적에 비례한 자금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계통이용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경영

이같은 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사업혁신에 더해 사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사업 발굴과 사업간 시너지 창출 등 안정적인 경영의 토대 마련에도 힘쓴다.

우선 사회사의 지속경영을 위해 올해 수립한 회사 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농협홍삼과 농협무역의 흑자전환, 농협양곡의 수익성 개선,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자립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올해 친환경 자재 전문회사로 출범한 농협에코아그로와 농협식품·농협물류의 사업육성, 남해화학과 농협케미컬·농우바이오의 내실경영을 꾀한다.

※ 농수축산신문(2023.11.28.)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주)조비 비료 관심

- 뛰어난 토양개량 효과에 작물생육도 ‘쑥쑥~’
- 채종유박 함유된 고급비료 ‘첫거름혼합유박’



지난 11월 9일, ‘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시작됐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존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사업이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을 대상으로 비종 및 등급에 따라 1포(20kg)당 1,300~1,600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조비(대표이사 이승연)는 ‘첫거름혼합유박’, ‘첫거름골드’, ‘지오파’, ‘유기애골드’ 등 4개 제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조비의 유기질비료는 질소와 인산, 칼리와 함께 고급 유기질 원료가 최적의 조건으로 배합돼

있다. 고품질 양분이 작물의 생육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 공급돼 작물의 품질을 높인다. 토양 개량 효과도 뛰어나 토양의 보수성과 통기성을 좋게 하고 미생물의 활발한 활동을 도와 작물의 생육을 활성화한다.

입상 형태로 사용이 편리하고 균형시비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과수 및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등 작물의 당도, 맛, 향기, 색, 저장성 향상을 고르게 높이는 것은 물론 작물을 튼튼하게 해 각종 생리장해에 대한 저항성 증대에 효과적이다.

조비의 비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노지 기준 파종 1개월 전 또는 멀칭·시설재배 기준 정식 10~15일 전에 밑거름으로 전층 시비하고, 토양비옥도 및 과수 수령에 따라 시비량을 10~20% 증감하면 된다. 과수류의 밑거름은 휴면기인 10월 이후부터 이듬해 3월 이내에 사용하면 신초생장 촉진과 수세 유지에 효과적이다. 1년 2기작인 경우에는 시비량을 약 10% 줄여 사용하면 된다.

혼합유박으로 신청 가능한 제품은 첫거름혼합유박이다. 고급 유기질 원료인 채종유박 등 식물성 유기물이 함유돼 있다. 혼합유기질로 신청 가능한 제품은 유기애골드, 골분이 함유된 첫거름골드, 동애등애분이 함유된 지오파까지 3종이다. 이들 3종 비료에는 식물성, 동물성 유기물이 함유돼 있고, 유기태 성분의 함량이 높아 토양개량과 농산물 품질 향상에 효과적이다.

※ 원예산업신문(2023.11.28.)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K-농기자재 수출 현장 간담회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4일 국내 작물보호제(농약) 수출기업인 팜한농을 방문,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농기자재 분야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올해 18억원에서 내년엔 3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농약 시장에서 팜한농은 자체 개발한 원제를 기반으로 작물보호제 수출을 확대해 올해 농약 수출액이 10월말 현재 7640만달러로 전년 동기 5370만달러 대비 42.2% 늘었다. 올해 농약 수출액은 전년 2억3100만달러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 팜한농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수입 원제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수출전략형 작물보호제 원제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신설해 원제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에서 "농기자재 수출업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트로신문(2023.12.14.)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작물에 흡수 빠른 질산태질소, 기능성유황이 함유된 "엔피코 뿌리왕왕PN, 왕왕질산NK"
 - 불량한 기후환경에서도 빠른 뿌리내림, 비료이용율 향상으로 왕성한 생육
 - 월동작물 생육향상, 원예·과수류 일반재배에도 효과적



밀겨름(13-8-9+1+0.2,유황10,황산칼륨함유)



웃겨름(15-1-12+1+0.2,유황함유)

신제품 엔피코 질산태질소, 기능성유황 함유 "뿌리왕왕PN(13-8-9+1+0.2)" "왕왕질산NK(15-1-12+1+0.2)" 비료출시로 농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능성비료 엔피코 뿌리왕왕PN, 왕왕질산NK는 작물 정식후 냉해, 가뭄 등 불량환경에서도 작물의 양분흡수력을 높여 빠른 뿌리확장 등 생육향상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작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속효성 질산태질소와 유황을 다량 함유한 기능성 비료입니다.

질산태질소 및 기능성양분 함유 엔피코 뿌리왕왕PN, 왕왕질산NK는 특히 마늘, 양파 뿐만 아니라 원예, 과수류의 모든 작물이 좋아하는 흡수형태로 빠르게 이용가능한 질산태질소를 공급함으로

써 요소태질소만을 함유한 관행 복합비료 대비 뿌리발육이 왕성하며, 성장이 뚜렷하고, 수량성 확보가 뛰어난 장점이 있다. 적기에 빠르게 흡수해야 하는 마늘, 양파, 배추, 고추 등 원예류 및 과수류 등 밀겨름, 웃겨름 처방시 양분결핍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품질향상 및 수량증수에 효과적이다. 농촌진흥청 지정 공인기관 시험결과 초장 등 생육이 우수하며, 과수가 많고, 과중이 무거워 7~9% 수량 증수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밀겨름용 뿌리왕왕PN은 원예, 과수 작물의 생육 향상을 위한 필수양분과 질산태질소 및 황산칼륨, 유황을 다량 함유하여 작물생육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맛, 당도, 떼깄, 저장성 향상의 기능성효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효과적이다. 또한 웃겨름 왕왕질산NK는 질산태질소, 기능성 유황 함유하여 빠른 양분 흡수효과, 유황 공급의 상품성 향상으로 생육 중, 후기 작물의 필수양분의 빠른 공급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적합한 기능성 제품이며 농업인의 호평과 함께 사용 문의 및 관심이 높아 회사관계자는 금년도 판매확대에 큰 기대를 보였다.

※ 풍농 자료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협회 '23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 현황 보고(11.27, 마포 풍농)
- 농식품부 주관, 요소 수급 관련 회의 참석(12.6, 서대문구 농협 회의실)
- 농식품부 주관, 원자재 수급 관련 회의 참석(12.12, 세종 농협 회의실 3층)
- 홍보책자 자료 수집 및 업무협의(12.12, 국립농업과학원, 12.14, 안양 FAO한국협회)
- 무기질비료 산업 발전 협의회 위원(현해남 교수) 협회 방문 면담(12.13, 협회)
- 농업전문지 내방객 안내 및 현안 설명(12.15, 협회)
- 농촌경관 사진 사용 관련 업무 협의(12.20, 대전 농어촌공사 지역 개발 지원단)
- 무기질비료 산업 발전 협의회 위원 방문 면담(12.21, 안산 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
- 「2023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참관(12.22, 양재동 aT센터)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보도 동향

【 국 내 】

□ 수입선 다변화도 비료업계엔 ‘그림의 떡’...“원료가격 오를라” 촉각

2021년 중국 요소 대란 사태를 겪은 후 정부는 수입 시장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최근 발생한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원료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등 비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비료업계는 이번 사태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제2의 요소 대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원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료업계의 우려 속에 정부는 4일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는 등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있어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요소는 이미 국내에 도착해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현재 비료용 요소(원자재)를 연간 예상 수요량(37만톤)의 약 125%인 46만톤을 확보하고 있다. 질소질비료의 완제품 재고는 3만톤, 원자재 확보재고량은 12만톤으로, 현재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입선 다변화와 유사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대비하면서 2021년 65%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22% 수준으로 낮췄다. 이를 대신해 중동 국가산 요소 수입 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근거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가동해 중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요소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천톤 단위’ 발주 중국과 달리

○ 중동국가는 ‘만톤 단위’ 가능

○ 비료업체 사실상 구입 어려워

- 중동산 요소를 바라보는 정부와 비료업계의 온도차

앞서 농식품부 설명처럼 2021년 중국 요소 대란 이후 정부는 요소 수입선의 다변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개척한 곳은 중동국가다. 그 여파로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동국가인 카타르(33.7%)다. 중국(22.4%)과 베트남(10.7%), 사우디아라비아(8.0%)가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중동산 요소에 대한 비료업계의 시각은 정부와 온도차가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중국에선 몇 천톤 단위로 구매할 수 있지만 중동산은 몇 만톤 단위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원료 도착기간이 중국은 3일인 반면 중동은 20~30일 정도 걸리는 등 먼 거리와 수송기간을 감안해 주문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요소는 보관기간이 길어지면 품질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장기보관하지 않고 적정수량만 구매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중동국가의 원료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통상 원료를 구매할 때 2~3개월 사용물량을 한 번에 구매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원료 가격과 환율, 운임비 등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거리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중동산 원료의 최소 발주물량은 2만~3만톤이 돼야 한다. 이 물량은 적잖은 업체들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한다. 변동성을 감안할 때 연간 사용물량을 한 번에 발주하기엔 업체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국제 정세 등이 원료 수급과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산 요소가 대부분의 비료업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원료가격 상승분 정부 지원 주문

- 비료업계가 말하는 현실적 대안은?

비료업체들은 국제 원료가격이 급등해도 이를 비료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 비료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한다.

C업체 관계자는 “원료의 국제 시세는 변동성이 크다. 비료업체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현 가격 시스템에선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답답하다”며 “원료를 받을 수 있는 공장 위치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원료 공동구매도 일부 업체들에게만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료업계는 원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비료 가격은 농산물 가격과 소비자물가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비료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원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준다면 비료업체들도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12.8.)기사내용 인용

□ 2년 만에...‘요소 대란’ 재현될라

○ 중국 정부 요소 수출 통제, 국내 비료업계 예의주시

○ 당장 직접적 피해 없지만, 장기화 되면 생산 차질 우려

요소 대란 우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세관이 최근 국내 기업이 구매한 요소의 선적 작업을 중단시키면서 제2의 요소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통제 여파는 국내 비료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해 이달 하순경 선적하기로 했지만 중국 업체의 요청으로 선적 일정이 미뤄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선적 지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담당자가 급하게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며 "중국 업체에선 선적 지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계약 파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에 판매할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일부 선적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비료업계에서는 아직은 요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요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미리 구매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재고 물량을 활용한다면 당분간 비료 생산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그동안 중국산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2021년 요소 대란 이후 거래선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다양화하면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도 아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 정부 통제로 중국산 요소 구매에 제한이 생기는 기간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면 다른 요소 수출국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원료 부족과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비료업계의 이 같은 우려는 이미 2021년 발생한 중국발 요소 대란 사태에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중국산 요소의 톤당 가격은 2021년 8월 439달러에서 960달러로 118.6% 급등했다. 문제는 중국산 요소 가격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중동산 요소 가격도 451달러에서 933달러로 106.8% 치솟았다. 비료업계 주장대로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제한이 국제 요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C업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제한 자체는 큰 이슈가 아니다. 다른 국가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요소 대란 사태를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향후 가격 상승과 수급 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비료업계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며 "비료 원료는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정부가 비료업체들에게 원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지원 등이 이뤄져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12.8.)기사내용 인용

□ "수입 다변화, 정책지원해야 성공"..전문가, 中 자원무기화 해법 한목소리

○ 민간기업 가격 경쟁력 높은 중국산 놓고 다변화 부담

중국이 최근 요소에 이어 화학 비료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고 물량을 비축해 당장은 수급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출 제한 품목 확대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법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 기업의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 줄여줘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하는 정부가 기업에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정식 교수는 "민간으로서는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두고 다변화의 부담을 질 필요성이 낮다"며 "정부가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GS&J 원장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가격과 질을 고려했을 때 중국산이 경쟁력이 높아 벌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독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제3국과 도입 계약을 한 이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 단가나 물류비 등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수입 다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에 정부도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중국보다 비싼 제3국에서 수입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 역시 고려해야할 선택지로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투자 등을 통해 가격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순도 높은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농축 수산물과 같이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에 대해서는 시장도 수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국가 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대기업은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지만 중소·소상공인은 정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입선을 뚫고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베트남 등에 부분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 투자를 통해 우리 공장에서 생산분을 채우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파이낸셜뉴스(2023.12.10.)기사내용 인용

□ 농장 입찰中 자원통제.. 공급망 위기 여전

○ 공급망 기본법 지각 통과, 공포 6개월 뒤 효력 발휘

최근 중국발 요소 수급 부족 사태가 재발한 가운데 '공급망 기본법'이 법안 발의 1년 2개월 만에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려면 정부 공포 후 6개월 지나야 되는 데다 중국이 요소뿐 아니라 인산암모늄, 흑연 등 다른 품목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14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공급망 업무를 기재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인 인산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중국 인산암모늄 의존도는 95%에 달하는데, 이미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내년 초 농번기까지 수급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 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에 수출입은행 대출·금융 비용 등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마저도 내년 6월이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공목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입법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면서도 “공급망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중국 등 특정국 의존이 지나친 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2023.12.10.)기사내용 인용

□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까지..비료업계 긴장

○ 중국 정부 수출통제 나서, 내년 농번기까지 지속 전망, 비료 원료가격 상승 우려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의 수출을 통제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가 수급에 미칠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인산암모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비료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비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인산암모늄(DAP)의 수출 통관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중국산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의 수출 통제가 내년 농번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인산암모늄은 주로 복합비료에 사용하는 비료 원료로, 전체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업계에서는 “DAP는 복합비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라며 “현 상황에선 내년 1분기까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인산암모늄 재고량은 완제품 1만톤, 원료 재고량 3만톤 등 약 4만톤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소요량(10만톤)과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당분간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중국산 인산암모늄의 수출 통제가 국제 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산암모늄의 톤당 가격은 2020년 하반기 349달러였지만 중국산 요소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2021년 하반기엔 749달러, 2022년 상반기 948달러, 하반기 859달러로 치솟은 바 있다. 올 상반기 가격도 638달러로 확인됐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비료업체들이 중국산 인산암모늄을 선호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3000~6000톤 규모의 선박을 이용해 쉽게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제품의 스펙이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에 부합한다. 그리고 짧은 운송 기간 등의 장점 때문에 중국산이 비용적으로 저렴하다는 강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강점을 가진 중국산 인산암모늄을 수입하지 못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하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4만~5만톤 규모의 대형 선박을 이용해야 하고 소요기간도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운임비도 중국보다 2~3배 더 오르는 등 업체들에겐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에서 못 사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면 된다. 문제는 가격”이라며 “중국산 인산암모늄을 구입하지 못한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쏠리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DAP는 요소보다 생산국가가 제한적이라서 중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비료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인산암모늄 생산기업의 내수 전환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인산암모늄의 수입선을 베트남, 모로코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이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인산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비료업체 관계자는 “국내 생산·수출업체를 통해 인산암모늄을 공급 받으면 좋겠지만 해당 업체도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화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농협 공급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비료업체들은 쉽게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다. 정부가 원료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 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12.12.)기사내용 인용

□ 비료 원료 수급불안 장기화 철저 대비

중국이 비료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와 인산암모늄(DAP)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비료값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출 잠정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비료가격 추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보전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한숨만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801억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21년 중국발 요소 대란 사태가 불거진 이후 농업용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60%대에서 20%대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요소 비축 물량과 질소질비료 완제품 재고도 상당히 당장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비료 원료로 주로 쓰이는 DAP도 내년 5월까지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필요시 국내 업체가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DAP를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다. 수입선이 중동지역 등으로 바뀌면서 이미 운임 비용 등 원가가 높아져 비료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데다 국제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요소수의 경우 사재기 움직임이 일면서 일부 주유소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는 품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돈을 주고서도 비료와 요소수를 구입하지 못해 농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제2의 요소 대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 576억8100만원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 증액이 불발된다면 우리 농가는 생산비 부담으로 '빈손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 농민신문(2023.12.13.)기사내용 인용

□ '중국發 수급불안' 요소, 내년 관세율 0%로 조정

최근 중국발 수입 중단 사태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던 요소와 인산이암모늄이 내년 정기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요소의 경우 2%(비료용) 또는 8%(산업용)였던 세율이 내년에는 0%로 낮아진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도 8%였던 세율이 내년 상반기 기간에는 0%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기 할당 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문화일보(2023.12.19.)기사내용 인용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든 656조6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하는 예산과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각각 171억 원, 288억 원 증액됐다.

외교·통일, 환경,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각각 1000억 원, 2000억 원, 8000억 원 삭감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더 강화된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의 증가율(올해대비)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인 2.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 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이투데이(2023.12.21.)기사내용 인용

【 국 외 】

□ 중국 비료업계 "12월 요소 수출 중단·내년 1분기까지 제한 가능성"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중국 비료업계에서는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중국화학비료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탄권잉은 전날 게시한 글에서 "최근 요소시장에는 흔들림과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호재와 약재 요인이 팽팽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탄권잉은 "산시성 진청 지역의 요소 기업이 생산량을 제한했고, 남서부 지역의 천연가스 요소 기업은 천연가스 제한으로 집중 공장 가동 중단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중국) 국내 공급 보장·가격 안정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데, 비수기(요소) 비축이 둔화하면 수출도 조여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소식에 따르면 12월 요소 수출이 잠정 중단됐고,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전까지의 수출이 모두 제한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갓가지 조짐이 요소 수출길이 막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전잉은 생산 제한과 천연가스 제한이 겹치면서 12월 요소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화학비료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일 요소 생산 총량은 17만 3천400t인데, 이달 중순부터 남부 지역 천연가스 요소 기업이 집중 점검 기간에 들어가면 공장 가동 중단이 1개월 안팎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요소시장에 관한 조정·통제 조치가 빈번하게 나왔고 소문도 적지 않지만, 이후 추세는 정책 외에도 국내 수급과 수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sbs뉴스(2023.12.4.)기사내용 인용

□ “中 수급 압박으로 요소인산암모늄 수출 규제 강화”

○ “中 당국서 당분간 수출 인정 않겠다는 내부 통지 나와”

중국 정부가 화학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요소와 인산암모늄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국 내 수급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지지통신이 전했다.

매체는 "중국 관계 당국으로부터 수출을 당분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부 통지가 나왔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일본으로의 (요소)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 경 요소 수출에 필요한 절차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이후 11월 말쯤 중국 당국이 수출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내부 통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인산암모늄의 경우 지난달 이후 신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화학 비료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요소와 인산암모늄의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다. 요소는 트랙 등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장치에 사용된다. 인산암모늄은 소화제 원료 등에 쓰이는데 일본은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매체는 한국에 대한 요소의 수출 절차는 이미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의 한국에 대한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요소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 조세일보(2023.12.5.)기사내용 인용

□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 中 비료 의존 줄여.. "실행 어려워"

한국 등 아시아의 비료 수요처들이 중국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수요처들은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인 중국이 점점 믿을 수 없는 공급처가 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체 공급처들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치솟는 국내 가격을 잡겠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이후 비료 성분에 대한 수출 쿼터와 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 축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비료 구매처의 한 곳인 인도는 2023-24년 회계연도 상반기 중 중국산 요소 반입물량을 58%나 줄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요처들도 중국에서 벗어나 베트남과 이집트에서 인산비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공급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 YTN사이언스(2023.12.19.)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관원 농자재 업무 체계적 효율적 관리 위한 부서 기능 개편

○ 3개 과로 나뉘었던 농약·비료·유기농자재 업무 통합 운영

- 기존 농업정보과를 정보관리자재과 개칭 후 업무 통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가 3개 과로 분산된 농자재(농약, 비료,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지난 2017년 1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허용물질등록,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인증관리과'로 이관받은 것에 이어 2021년 8월 생산·유통 비료 품질검사, 부정불량비료 단속·신고처리, 관계자 교육 등을 '농업경영체과'로 이관받았다. 올해 1월에는 유통 농약 품질검사·단속, 항공방제업신고(신설), 농약피해분쟁조정(신설) 등의 업무를 '소비안전과'로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은 신규 도입한 농자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농업정보과'를 '정보관리자재과'로 개칭하고 해당 업무들을 통합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료·농약 등 관련 업체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통일된 규정 해석과 적용으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업정보과'에서 운영하던 데이터 분석·활용 기능은 '농업경영체과'로 이관하고 드론 운영은 '직물관리과'로 이관함으로써 업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기자재신문(2023.11.27.)기사내용 인용

□ 농자재 지원조례 확산·정부 외면말길

일부 지자체에서 비료와 농약, 전기 등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붐이 일고 있다. 생산비 폭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첫 스타트를 끊은 건 충남 공주시. 10월 조례를 제정한 공주시는 농자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고 2022년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해 인상이 50%를 농민들에게 지원한다.

공주시를 시작으로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별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산군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발의 형태로 추진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다.

아직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000억원.

비료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무기질비료 특성과 여전히 비료 원료의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만약 내년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보조사업이 전면 중단되면 비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무기질비료 가격이 미칠 파급은 적지 않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은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농산물 생산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농산물 물가 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 보조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과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 2024년도 예산 수립에 나선 국회가 농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11.28.)기사내용 인용

□ 농림수산 ODA예산 2030년까지 ‘2배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 개최

- 식량안보 위기 극복 등 기여

우리나라가 식량위기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021년 기준 2497억원 수준인 농림수산 ODA 예산 규모를 2030년

까지 2배 확대하고, 식량안보 위기극복 등에 체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월 24일,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농업 분야 및 교육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코자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식량안보,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추진전략은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식량안보 위기와 학습손실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이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농업 ODA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농업생산량 증대를 통해 한 세대 만에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 발전경험을 전수해달라는 개도국의 요청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업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수원국의 농업발전단계 및 지역별 특성, 현장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통해 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즉, 농업 저발전국은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자생적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농산업화 도약국가는 유·무상 원조와 연계해 농산업화 이행, 디지털농업 확산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농림수산분야 ODA 예산 규모를 2021년 2497억원 대비 2배 확대한다. 또한 2023년 5만톤 규모였던 식량원조 규모를 2024년에는 10만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식량위기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식량 직접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 생산성 증대, 농산업화 이행, 디지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분야 발전에 기반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K-라이스벨트’ 사업처럼 인프라 구축-종자 개발과 보급-수확 후 관리 등 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11.28.)기사내용 인용

□ 농지 형상기능 유지 못해·수천명 공익직불금 깎였다

○ 준수사항 17개 중 4개 중점점검, 10% 감액...총액 11억원 상당

○ 해마다 같은 문제로 논란 겪어, 정성적 측면 강해 개선 필요성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현장점검 결과 직불금이 감액된 농민(이하 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기준)이 5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자 133만4457명(112만3319ha) 가운데 16만5985명(6만2914ha)을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가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4개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공익직불금을 전액 받으려면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주된 감액 사유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였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토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현장점검 결과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농민은 총 5835명으로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감액규모는 약 11억원에 달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부적합에 따른 감액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매년 같은 준수사항으로 상당수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미준수로 인한 감액규모는 2020년 23억원, 2021년 34억원, 2022년 16억원이었다.

올해 농정연구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발전방안’ 보고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 ‘적합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정성적 측면이 있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원과 농민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며 준수사항의 기준을 지적한 바 있다.

※ 농민신문(2023.11.29.)기사내용 인용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 “농가경영 안정장차농산물 가격 안정 급선무”

“어려운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국민 모두가 어렵다”며 “농자재·비료·유류 등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농민을 위한 소득·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농식품 정책의 급선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혁신 ▲인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스마트화 ▲케이(K)-농식품 수출 활성화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송 후보자는 1967년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농경연에 입사해 부원장과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등 요직을 거친 농정 전문가로 농업계 안팎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도시·농촌 상생모델과 균형발전분야에 대한 연구경험이 풍부해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조화를 이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 농민신문(2023.12.4.)기사내용 인용

□ 세계 최초로 메탄 발생 획기적으로 줄인 벼 개발

○ 전통 육종방법으로 메탄 발생 최대 24% 낮춘 그린라이스 ‘밀양360호’ 개발

○ 벼 씨알 크기 관여하는 기존 유전자(지에스쓰리)서 메탄 저감 기작 새롭게 밝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벼 씨알(종실)을 크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지에스쓰리(gs3)에 메탄을 줄이는 작동 원리(기작)가 있음을 새롭게 밝히고, 세계 최초로 메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라이스 벼 계통 ‘밀양360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린라이스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화학비료 50% 저사용 및 메탄가스 저발생 신초형 벼를 말하며 농촌진흥청에서 2022년부터 논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저탄소 그린라이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유전자 조작 등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벼에 원래 있었던 지에스쓰리 유전자를 도입해 메탄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결과라 주목된다.

벼 뿌리에서는 메탄을 발생시키는 고세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삼출물)을 배출한다. 지에스쓰리 유전자는 이 물질이 적게 분비되도록 작동해 메탄 발생을 줄이고 대신 벼알을 굵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농기자재신문(2023.12.13.)기사내용 인용

□ 농촌진흥청 “북한 식량작물 482만t 생산 추정…작년보다 6% 증가

북한의 올해 쌀, 옥수수 등 식량작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31만t(톤) 늘어난 482만t인 것으로 추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추정치는 북한의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정보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북한이 올해 생산한 식량작물을 종류별로 보면 쌀 211만t, 옥수수 170만t, 감자·고구마 58만t, 밀·보리 22만t, 콩 19만t, 기타 잡곡 2만t 등이다.

지난해보다 쌀은 4만t(1.9%), 옥수수는 13만t(8.3%), 감자·고구마는 9만t(18.4%), 밀·보리는 4만t(22.2%), 콩은 1만t(5.6%)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작물 생육 초기와 수확기에 비가 적당하게 내렸고 기온도 비교적 높아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농진청은 분석했다.

※ 연합뉴스(2023.12.15.)기사내용 인용

□ 농촌진흥청, 흙토람 제공 토양적성도 100작물까지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5일부터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제공되는 토양적성도를 100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농경지 특성에 따른 작물의 적성 등급을 나눠 지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흙토람에서 제공하던 작물별 토양적성도는 과수류 11종, 과채류 10종, 잎·줄기채소류(경엽채류) 11종, 약초류 7종, 곡류 6종, 뿌리채소류(근채류) 6종, 비늘줄기채소류(인경채류) 2종, 유지류 4종, 콩류 3종, 산채류 3종, 감자류(서류) 2종, 인삼 등 모두 66종이었다.

농진청은 여기에 이번에 산채류 가운데 고사리 1종, 유사 작물군으로 분류된 소면적 작물 33종을 추가한다. 모두 100작물의 토양적성도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소면적 작물 33종은 기존 66작물이 가진 5개 요인(생태형, 월동 여부, 생리 특성, 질소고정균 공생 여부, 초본·목본 여부)을 기준으로 분류해 추가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까지 농가 수요가 많은 160여 작물을 대상으로 유사 작물 연구를 거쳐 토양적성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민신문(2023.12.18.)기사내용 인용

□ 농식품부, 조직개편 단행...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과제 이행과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대비 조직 보강, 현안 정책 추진 전담기구 신설 등의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동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스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과·팀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 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세계적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케이(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 미디어펜(2023.12.20.)기사내용 인용

□ K-Food+ 수출탑 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처음 운영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 농장,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음식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출탑은 억불대, 천만불대 등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대상·최우수상·우수상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도약상, 신규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시장개척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스마트팜상'으로 구분되며 올해 총 50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가졌다.

전세계적인 고물가,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양식품(주)'은 매운맛 열풍을 일으켜 라면 수출 역대 최고치를 견인하고 ▲'㈜대동'은 북미시장으로 중소형 트랙터 수출 확대 성과 등으로 억불대 수출탑인 대상을 수상했다.

※ 원예산업신문(2023.12.20.)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공급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10월	2023년 10월
생 산 량	2,142	2,397	2,039	1,711	1,481
출 하 량	2,054	2,429	1,860	1,663	1,546

※ 협회 회원사 기준(수출 포함)

□ 최근 4년간 연도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가격(달러)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암모니아	273	270	437	672	957	936	580
D A P	314	349	485	749	948	859	638
염화칼륨	312	274	271	363	633	965	533
환율 (매대기준율)	1,207	1,154	1,117	1,171	1,232	1,351	1,295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6 무기질비료 상식

□ 발작물에 황이 든 비료가 좋은 이유

우리나라 밭에는 황이 부족한 형편이기에 벼농사가 아니면 유안이나 황산칼륨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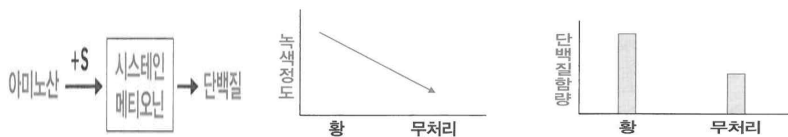
발작물에서 황(S)은 질소, 인산, 칼리와 함께 4대 원소에 속할 만큼 중요한 다량원소입니다.

● 발작물의 필요 원소 순서
N ≒ P ≒ K ≧ S ≒ Ca ≒ Mg

식물 단백질의 1/30~1/40은 반드시 황이 함유된 단백질인데 일단 단백질은 질소를 흡수하여 만들어지고 황함유 단백질은 황이 흡수되어 만들어집니다.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만드는데 중요한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이 줄어들어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엽색이 옅어지고 단백질 함량도 적어지고 수량도 적어집니다.



특히, 양파나 마늘에 황이 부족하면 설퍼옥시화물이 감소되어 향이 약해져서 품질이 떨어지고 십자화과에 속하는 브로콜리, 양배추, 순무, 콜리플라워 등에 황이 부족하면 황백화현상이 나타납니다.



엽채류나 향이 중요한 발작물에는 복합비료를 사용하거나 맞춤형비료를 사용할 때 황이 함유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논에서는 황이 든 비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토양을 산성화시키거나 추락답의 원인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산을 포함한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철이 적은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 등으로 이루어진 논토양에서는 황화수소에 의해 뿌리를 상하게 하고 뿌리 성장이 나빠져 토양을 산성화시킨다고 합니다.

* 식량안보와 무기질비료 자료 인용

7 이달의 주요 인사

□ 농협중앙회(2024.1.1일자)

○ 농협경제지주 상무

〈 농업경제 〉

- 김주양 (前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장)
- 심민섭 (前 농협경제지주 마트상품부장)
- 정정수 (前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장)
- 정창운 (前 농협경제지주 농산물도매부장)

○ 임규원 자재사업부장

□ KG케미칼(주)(2024.1.1일자)

○ 김재익 사장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오래가
- 성분량 : 18-8-8+4+0.2
- 특성 및 효과
 - 비료성분이 벼 생육에 맞게 용출되는 완효성 비료로 유실이 적고 흡수율이 높음
 - 밑거름 1회 시비로 비효가 지속되어 시비노동력 절감
 - 고품질 쌀 생산에 적합한 첨단비료

□ (주)조비



- 제품명 : 스피드NK
- 성분량 : [18]-2-10+1+0.1 (질산태 질소, 아미톤 함유)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인 질산태 질소를 함유하여 양분 흡수가 빨라 초기 생육에 도움이 됨
 - 질산태 질소는 낮은 온도에서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좋아짐
 - 대사활성물질 아미톤 함유로 생리장애예방, 면역력증가에 도움을 줌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지 않아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향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큰 효과

□ (주)팜한농



- 제품명 : 광분해 한번에특조
- 성분량 : 32-7-7 (100% 코팅 완효성 비료)
- 특성 및 효과
 - 일반 완효성 비료 대비 절반만 사용해도 동일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음. 100% 코팅이라 시비기 막힘이 없고 기계부식을 막아주는 농기계 작업에 최적화된 비료
 - 광분해 기술이 적용된 환경친화적인 비료로 코팅 껍질 잔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비료 사용량이 절감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녹색인증과 신기술 인증을 받아 국가 기관에 의해서도 그 우수성이 공인되었음.

□ (주)풍농



- 제품명 : 스마트21복합
- 성분량 : 21-6-(7), 고토2, 붕소0.3,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저인산형태의 벼(촉조시비), 원예전용 21복합 밑거름
 - 초기생육 촉진은 위한 속효성 필수양분 및 생육중기까지 지효성 양분 함유로 작물생육향상
 - 황산칼륨 함유로 벼, 원예, 과수작물의 맛, 당도, 때깔을 높여 주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
 - 고토, 붕소 등 미량요소 양분 강화로 미량요소 결핍예방 및 수량증수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파워한번에OK
- 성분량 : 22-6-9+1+0.1(코팅NK, 규산, 칼슘, 미량요소함유)
- 특성 및 효과
 - 고성능 완효성비료, 우수코팅 질소, 칼리 함유
 - 한번 시비로 이삭거름까지 지속(90일 영양분 지속)
 - 촉조시비가 가능하며, 벼 생육주기에 알맞게 영양공급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올인원
- 성분량 : 20-7-8+2+0.2(완효성비료)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 복합비료로 밑거름1회 시비로 생육기간동안 필요한 양분을 공급
 - 입도가 균일하여 기계 살포 및 측조시비에 용이
 - 고토 및 붕소를 함유하여 미질 향상

□ KG케미칼(주)



- 제품명 : 참세대22
- 성분량 : 22-7-9+1+0.2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과 지효성 원료가 적절히 조합되어 작물 초기 생육 및 후기까지 비효가 지속
 - 분진 발생이 적어 측조시비 편리

※ 무기질비료 사용안내서 인용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